

프탈레이트 가소제 완구 사용 근절

환경부, LG화학 비롯 자율적 협약 ... 한화석유화학·애경유화·OCI도

완구 및 수액백 등에 대한 프탈레이트(Phthalate) 사용이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LG화학·한화석유화학, 애경유화, OCI를 비롯한 7개 가소제 생산기업과 1개 조합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프탈레이트 사용이 근절됐다고 1월15일 발표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된다.

가소제 제조기업들은 자율적 협약에 따라 완구류, 수액백 등의 원료로 프탈레이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했으며, 수액백 제조기업은 제조공정에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혼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생산기업들은 원료나 부품 등의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기업에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2007년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이 일부 어린이 용품이나 수액백, 혈액백 가소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관련기업 외에 다른 수액백 제조기업이나 영세 완구 생산기업 등과도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유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15>